

이시카와 · · · 나의 제 2 의 고향

이시카와 유학생 동창회 회장
(학교법인 호쿠리쿠대학 전무이사)
주 향

제가 처음 일본에 온 것은 1986 년의 일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1977 년에 종식되고 그 해부터 대학 입시제도가 10 년 만에 재개되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고분자화학중합반응공학이라는 분야로 졸업 후에는 대학 교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다른 대학원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청년교원 육성을 위한 해외파견 유학시험에도 합격해서 정식으로 가나자와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후 연구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이 되고 석사과정 수료 후 인연이 닿아 호쿠리쿠 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온 후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올해로 무려 28 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동기들이나 친구, 친척들을 만나면 「일본에 와서 진짜 좋았는지」 「카나자와는 좋았는지」 등등 입을 모아 묻습니다. 저의 대답은 인생의 반을 일본, 그리고 가나자와에서 보내서, 귀중한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막 왔을 때는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언어, 공부, 연구나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즐거웠던 추억도 수 없이 많습니다. 연구실 환영회, 꽃놀이, 연구학회 참가, 이시카와현 주최 지사 간담회, 우호협회 송년회, 해수욕, 등산, 청년 해외협력단 스키, 유학생협회 도쿄 연수여행, 하쿠만고쿠마츠리 오미코시, 초중고생들과의 교류회, 티 타임, 제 1 회 「J A P A N T E N T」 홈스테이, 모내기, 야채와 과일 수확 등등 많은 분들의 친절과 배려로 즐거웠던 지난날들이 떠오릅니다.

일본에 막 왔을 때는 유학생수도 적고 또한 국비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 참가하며 물론 공부와 연구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즈음 유학생 수는 그때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학생의 학습이나 생활 모습을 보면 「일본인과의 교류가 적은것이 아닌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은 거의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기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일본을 모른 채 일본인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귀국해버려도 괜찮은걸까 라는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교육기관에서 유학생 수를 배려하는 것 보다 좀 더 절실하고 중대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현재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개선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의 역할로서 일본의 선진 과학기술 습득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인과의 민간 인적 교류, 상호 이해 등은 학생 개인의 인간적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고 강하게 인식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학 경험자들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모국을 위해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과 모국의 양국간의 가교가 되기 위해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본 동창회가 여러분과 연계·협력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 가나자와, 이시카와, 일본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중한 이시카와에서의 만남 「인연」을 잊지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의견을 받아가며 이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냅시다 !

여러분도 제 2 의 고향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평생 잊을수는 없으시겠지요. 최근에 저는 사진 찍기에 푹 빠져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그리고 바다...이시카와의 멋진 자연을 재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